



[미술로 삶을 그리는 사람들]

예술이 된 만화, 작품이 되는 삶

따뜻한 세상을 그리는 만화가

A Cartoonist who draw the warm world

홍연식 만화가를 소개합니다.

여러분들은 ‘만화’라는 말을 듣게 될 때, 어떤 모습이 상상이 되시나요. 대부분 즐겁고 유쾌하고 모험이 가득한 만화를 떠올리실 것입니다. 어쩌면 현실에서 만나고 경험하기 어려운 순간들을 만날 것을 기대하실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여기 따뜻함이 물씬 풍겨나는 우리 이웃의 모습을 아름답고 즐겁게 표현하는 만화가 있습니다. 바로 홍연식 작가입니다.

홍연식 작가는 ‘검은 창공’이라는 작품으로 소년챔프 만화 신인 공모 우수상을 수상하면서 데뷔를 하였고, 아동 명랑 만화 “키요라”로 대한민국 출판만화대상 신인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후 줄곧 아동만화로 활동해 오다가, 작가 자신의 이야기를 작품으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담담하고 아름답고 솔직하고 즐겁게 그린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됩니다. 도시를 떠나 시골에서 생활한 자신의 얘기를 담은 ‘불편하고 행복하게’라는 작품으로 2012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받게 됩니다. 이후 발표한 ‘마당 씨의 식탁’이라는 작품 역시 그 작품성을 인정받아 문화체육부 장관상, 한국만화가협회장상 등을 수상했습니다.

멋있는 슈퍼맨이 등장하지 않더라도, 화려한 액션이 펼쳐지지 않더라도, 그저 솔직한 자신의 이야기를 그려낸 만화도 충분히 아름답고 흥미로울 수 있다는 것을 홍연식 작가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홍연식 작가를 통해 이런 생각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들보다 뛰어나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냥 솔직하게 나 자신을 표현할 수만 있다면, 나도 충분히 상 받을 자격이 있는 것 아닐까?’

오늘 우리에게 살아있는 교훈을 삶과 작품으로 전해주는, 만화가 홍연식 작가님을 소개합니다.

만화가가 되기까지

Q. 간략한 자기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가족만화를 그리는 만화가입니다.

교과주제별 학습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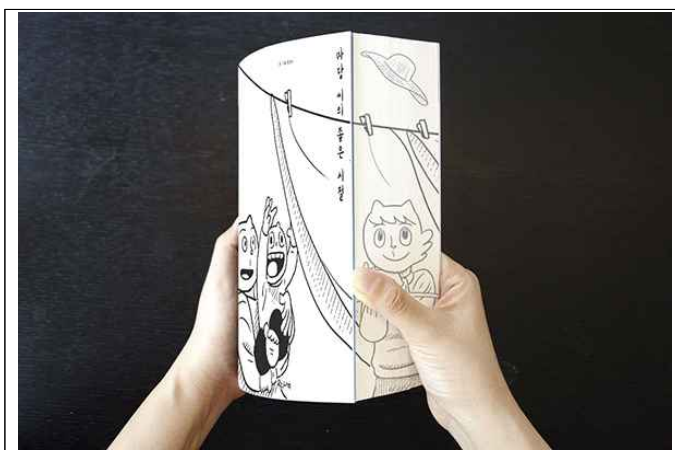


만화가가 작품을 완성하기까지

Q. 그동안 발표하셨던 작품을 소개해 주세요.

어린이만화 다수와 ‘불편하고 행복하게’, ‘마당 씨의 식탁’, ‘마당 씨의 좋은 시절’을 발표했습니다.

〈홍연식 작가님이 발표하신 만화들〉



마당 씨의 좋은 시절



마당 씨의 식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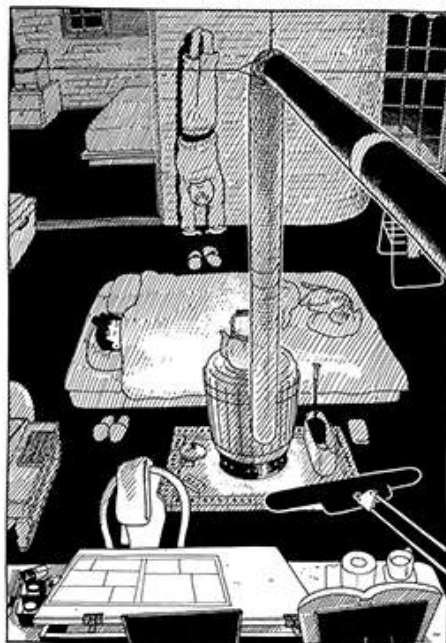
교과주제별 학습자료



불편하게 행복하게

Q. 작품들 속 장면들 중 기억에 남는 장면을 하나 고르신다면?

잠든 아내를 뒤로 하고 작업에 몰두 하는 남편 이미지입니다. 추운 겨울을 이겨내기 위해 고군분투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작가님의 기억에 남은 장면

Q. 작가님께서 만화를 통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인가요?

자전적 이야기를 통해 독자들도 공감할 수 있는 가족이야기를 계속 하고 싶습니다.



만화가 홍연식 작가님의 일상, 가족

Q. 만화가가 된 과정을 말씀해 주신다면?

어릴 때부터 그림그리는 것을 좋아하다가 기성 작가의 문하생(제자) 시절을 거쳐 신인공모전을 통해 정식 데뷔 후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만화가가 말하는 만화가

Q. 작가님이 생각하시는 만화가, 만화, 그리고 콘텐츠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나만의 세계관을 만들고 이야기를 펼쳐간다는 작업은 만화뿐 아니라, 이야기를 창작하는 모든 작가들만의 즐거움입니다. 대부분의 문화콘텐츠는 결국 즐거움을 선사하기 위해 만들어집니다. 만화, 웹툰, 음악, 영화, 책까지... 골고루 즐기시면 좋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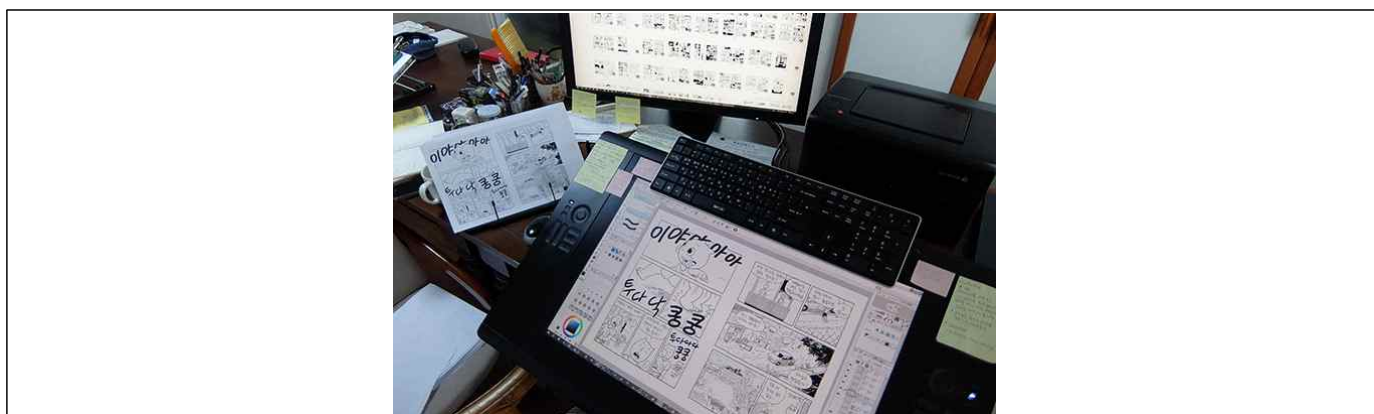
만화로 세상과 대화를 나누다



만화가가 말하는 미술 수업

Q. 미술 수업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주신다면?

초, 중학교 때 선생님께서 제 맘대로 그린 스케치북을 보시고 많이 응원해주셨습니다. 미술 수업에 모범답안은 없습니다. 그리는 것 자체를 즐길 수 있게 이끌어주신다면 가장 좋겠습니다.



! 이야기를 그림으로 완성하기까지

Q. 미술 수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수업은 한 교실에 앉아있는 다른 친구들의 그림 그리는 모습, 그림들을 함께 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선생님이 주도하는 수업이라기보다 같이 어울려 즐길 수 있는 미술 수업에 의미를 두면 수업으로서 충분할 것 같습니다.

Q. 만화가를 준비하거나 그림을 그리는 것을 좋아하는 친구들에게 조언을 해주신다면?

만화가가 되고 싶다가도 소설가, 시나리오작가, 드라마 작가, 화가, cf 감독, 영화감독 등 다양한 장르에서 활동하는 선배들이 많습니다. 재밌는 생각을 이야기로 만들어보고 맘대로 그려보세요. 미래는 모릅니다.

탐구 과제 : 만화로 표현하고 싶은 이야기를 생각해 봅시다.

친구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만화를 생각해 보고, 그 이유를 정리해 봅시다.

관련 단원 : 초등학교 3~4학년군 - 체험

중학교 1~3학년군 - 체험

■ 용어 설명

고군분투 : 적은 인원이나 약한 힘으로 남의 힘을 받지 아니하고, 힘에 벅찬 일을 극악스럽게 함